

# 5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특성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rvey of safety and health status in less than 5  
employee enterprises )

이승환\*  
Lee, Sung Hwan  
이태우\*\*  
Lee, Tae Woo  
강경식\*\*\*  
Kang Kyung Sik

## 요 약 문

지난10년간의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 (주)한국산업안전기술  
\*\* 한국산업안전예방(주)  
\*\*\*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1.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반 현황

### 1) 전국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현황

#### 가. 규모별 사업장수

98년 12월말 현재 종사자 규모별 사업장수는 종사자수 규모 1~4인 소규모 업체가 전체 사업장중 87.5%(2,438,466개)를 점하고 있고, 5~19인 사업장이 9.7%(271,071개), 20~49인 사업장이 1.8%(50,766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3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2,487개로 0.1%에 불과하였다. 전년대비로 보면, 4명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수가 소폭 감소(-0.9%)한 반면 5명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11.4%)하였다. 이에 따라 종사자 4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의 비중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86.3%에서 87.5%)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 규모가 큰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체가 감소한 반면, 음식점, 개인택시, 전자오락실 등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나. 규모별 근로자수

98년 12월말 현재 근로자수를 규모별로 분류하면 1~4명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 중 34.4%(4,274,596명)이고, 5~19명 규모 사업장에는 18.4%(2,287,048명), 3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는 16.4%(2,041,426명)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로 보면 4명 이하 규모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32.5에서 34.4%) 비해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종 등에서 비교적 큰 규모 사업장의 휴·폐업 증가로 근로자수가 감소한 반면, 개인택시, 전자오락실, 어린 이방 등의 증가로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2) 시·도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현황

#### 가. 시·도별 사업장수

사업장을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이 663,293개(23.8%)로 가장 많고 경기 425,043개(15.3%), 부산 249,677개(9.0%), 경남 186,052개(6.7%) 등의 순이며, 제주가 34,994개(1.3%)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업장수를 전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으나 특히 서울 및 6대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사업장수 구성비 변화는 전체 사업장수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43.7%)은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며, 대도시(서울 및 6대 광역시) 지역의 사업장수 비중

(50.9%)도 전년대비 0.6% 감소를 보였다.

#### 나. 시·도별 근로자수

근로자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3,378,615명(27.2%)으로 가장 많고, 경기 2,036,899명(16.4%), 부산 1,010,408명(8.1%), 경남 806,270명(6.5%) 등의 순이며 제주가 141,428명(1.1%)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97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대도시(-9.3%)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3)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특성

산업 구조별로 보면 2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98년 87.5%를 나타냈다.

지난 6년 간의 산업 구조별 종사자 구성비 추이를 보면, 광공업, 건설업 등 2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37.5%에서 29.9%로 점차 낮아지고, 도소매·서비스업종이 주축을 이루는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62.3%에서 69.6%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7~98년에는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각각 2.6%와 2.1%의 높은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2차 산업의 실직자들이 창업이 쉬운 3차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개인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인 경우 사업주 자신이 생산, 판매 및 영업 등 전반적인 경영을 수행하게 되고, 노동관계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5인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sup>2)</sup>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와 관련된 서류가 미비한 실태이며, 근로자의 이동이 많아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현저히 짧은 특성이 있다. 아울러 작업공정 및 기계기구 배치 상태를 보면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제품생산 형태가 완제품 생산보다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작업 공정이 제품특성에 따라 변화 설비나 기계기구 배치가 생산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대상 사업장, 사업주 개인 소유공장과 임대공장의 여러 가지 차이점중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안전관리 시설부분이다. 사업주가 소유한 공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거나, 경영의 호조가 있을 때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는 반면, 임대용 공장은 개선의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전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로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2) 4인 이하 사업장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

못하고 있어 산업안전관리가 취약한 상태이다.

#### 4)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기계·기구검사, 보호구 검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설비 또는 기계·기구의 이상상태의 점검이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호구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안전사고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안전불감증이, 경영 및 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저하와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작업복·안전화조차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고 지급을 해도 작업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기피하고 있어 보호구 착용이 정착되지 않아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설비 및 기계기구의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 및 보수에 있어서, 중·대기업으로부터 제품 생산에 대한 일정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중압감 때문에 설비 및 기계·기구의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산업안전교육이 필수적이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산업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조직에 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나가는 것이 안전활동이고, 안전관리 활동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인원 규모상 특별히 안전업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만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